

커피전문점, 과일음료·아이스크림도 잘나가네

중장년층까지 고객 확대 비커피음료 매출↑

따뜻해진 날씨에 다양한 메뉴 개발도 한 몇

회사원 곽정경(29·가명)씨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점심 식사 후 동료와 함께 커피전문점에 들러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다.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 몸에도 안 좋은 것 같고 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과씨는 요즘 커피전문점에 들러도 커피 대신 과일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주문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커피전문점들이 비커피 음료의 비중

을 높이고 있다. 커피전문점을 하루 한 차례 이상 방문하는 고객이 있는데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원한 과일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스타벅스가 2010~2013년 커피와 비커피 음료의 매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비커피 음료가 꾸준히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커피와 비커피 음료의 비중이 84 대 16이었으나 2011년 82 대 18, 2012년 80 대 20, 2013년

78 대 22로 비커피 음료의 비중이 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스타벅스는 이번 여름 '피지오'(Fizzo)라는 탄산음료를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CJ푸드빌의 투썸플레이스에서

도 작년에는 커피와 비커피 음료의 매출 비중이 66 대 34였으나 올해는 60 대 40으로 비커피 음료의 비중이 늘어났다. 비커피 음료의 품목 수도 늘어 작년 37종에서 올해는 46종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커피는 작년 15종에서 올해는 1종이 줄어든 14종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 들어 투썸플레이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료를 살펴보면 1~3위에 아메리카노, 라떼, 모카 등 전통의 커피 음료가 자리하고 있으

나, 이후로는 유자 레몬티, 핫 초콜릿, 그린티 라떼, 키wi 바나나 주스 등이 차지하며 다른 커피 음료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망고식스는 최근 출시한 딸기 음료 3종을 한 달 만에 20만개 넘게 판매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000잔을 판매한 셈이다.

금남도 망고식스 매장은 근무하는 한 직원은 "과거에는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주고객층의 대부분이 20~30대였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청소년층으로 확대되고, 하루에 여려 번 매장을 찾는 고객이 늘면서 메뉴 선택의 폭을 넓히는 추세"라고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기·수도 겸침 한번에

한전-수자원공 협약

앞으로 각 가정에 전기와 수도 겸침원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격 겸침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7일 협업 체제를 구축해 공동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들 기관은 각 가정과 연결된 전력선에 통신 모뎀을 설치해 한 번에 전기와 수도를 겸침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215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통합 원격 겸침의 대상을 점차 늘리는 방식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000만가구 가운데 262만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원격으로 겸침하고 있다. 이를 2020년까지 전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격 겸침이 이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달 겸침원 방문에 따른 불편이 없어진다. 한전과 수자원공사는 겸침원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통합 겸침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전 가구를 원격 겸침하는 설비를 구축하면 한전은 연간 2200억원가량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세계백화점 식품관 '인산인해'

8년만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마치고 7일 재탄생한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간편조리식 코너 등에 고객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중순께 이곳 식품관에 농수산 신선식품 전문코너인 '후레쉬미켓'을 오픈할 계획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여수산단 공장용지 확보 한층 쉬워진다

국토부, 산단개발계획 변경 기준 마련

여수국가산단의 공장 용지 확보가 현층 쉬워질 전망이다. 개발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 공장 용지의 확대 등을 위해 준공된 산단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의 지침을 고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 변경 기준을 ▲공장 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산업 수요 변화로 인한 유틸업종 변형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명

확히 했다. 이전까지는 준공된 산단의 개발계획 변경기준이 따로 없어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한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장)가 변경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산단의 녹지나 공공시설용지 등을 용도 변경해 개발하려면 개발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그 기준이 사실상 전무했던 것.

또 개정된 지침은 산단에서 공장

용지 확대 등을 위해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지가 상승 차액의 50% 범위 안에서 개발이익을 이용해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여전 NCC 등 투자 예정 기업들이 제기한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수국가산단 등 산단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 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시화·반월국가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의 도로·공원·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89.70(+1.61)

▼ 코스닥지수
554.23(-6.21)

▼ 금리 (국고채 3년)
2.87% (-0.02)

▲ 원·달러 환율
1055.40원(+1.90)

벼·고추 농작물재해보험 드세요

농협손해보험, 내달말까지

농작물재해보험=정부 및 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작물별로 태풍, 우박, 냉해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을 보장한다. 보통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자체가 30%(자체별로 다름) 안팎을 지원한다.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벼,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밤, 대추, 고추며, 시설작물 5종(멜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에서든 가입이 가능하다.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단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을 화재를 특약 가입 시 보상)이며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고추 품목은 올해부터 보장기간을 늘린다. 보장종료일이 '정식일로부터 130일째 되는 날까지'였던 것을 '140일째 되는 날까지'로 10일을 늘렸으며 보험가입 가능 지역도 확대했다. 벼는 14일부터 오는 5월23일까지 가입 가능 기간이 일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해야 한다.

임정수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장은 "농작물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를 사면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듯 이제 재해보험 가입이 영농의 필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라도 있을 피해에 대비해 꼭 보험을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내방고객 이벤트... 1000명에 '또봇' 증정

기아자동차가 다가오는 어린이날 맞아 3000명의 고객에게 변신 자동차 '또봇'과 기아차 미니카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연다.

우리동네 기아아차 캠페인

국내에서 기아차 전시장을 찾았을 때에 또봇, 기아차 미니카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는 27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m)의 '내방고객 이벤트' 페이스북을 통해 응모 가능하며 이때 인근 기아차 거점을 검색해 경품 수령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1등 당첨자 1000명에게는 '또

'봇'을 증정하며 2등 2000명에게는 미니카를 선물한다. 당첨 고객은 5월12일부터 응모시 선택한 기아차 거점을 직접 방문해 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체크카드 결제 취소하면 다음날 대금 돌려준다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최대 6일까지 걸렸던 대금 환급이 이달부터 결제 다음날로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매입 업무 절차와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이달부터 거래 취소일 다음날(D+1) 이내에 취소 대금 환급이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 결제 취소시 다음날 환급은 카드사별 관련 개선 작업 일정에 따라 4일부터 이달 말까지 차례로 시행된다.

행된다. 이에 따라 평일이나 주말·공휴일에 상관없이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다음달 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다만, 평일에 취소할 때에는 다음달 환급이 되지만 주말·공휴일에 취소 시 환급이 2~3일 걸리는 뜻데 카드와 씨티·NH농협은행 등 일부 카드사는 거래 취소일 다음날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분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홍삼은

복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